

〈일반논문〉

임오군란 시기 慶軍 막료의 기록을 통해 본 청 내부 정치 갈등

김 봉 준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慶軍의 조선 파견과 조청 인사의 교류 기록
- III. 장건·이연호의 헌책 비교와 정치적 입장
- IV. 원세개의 전향을 통해 본 내부 갈등의 윤곽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1882년 임오군란은 병자호란 이후 청이 200여 년 만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사례이자, 조선의 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 사건이었다. 또한 외교사적 관점에서 임오군란은 조선 문제의 국제화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청에서 파견된 경군은 신속하게 군란을 진압한 이후, 서울 내 요충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후 조선 측 영접관 김창희는 경군의 막료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이 중 장건과 이연호로부터 조선의 시무에 대한 헌책(獻策)을 받을 수 있었다. 1882년 임오군란 진압 직후 청군 인사와 교류를 가졌던 영접관 김창희와 그가 남긴 기록에 있는 장건과 이연호의 헌책에는 표면적으로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각자 소속 집단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었다. 또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한 양무(洋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구상의 차이도 반영되었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 청 내부 정치 갈등이 청류파와 양무파 간의 양자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집단 간의 다중경쟁의 구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집단의 이해 관계가 청의 내부 정책뿐만 아니라 조선을 비롯한 대외 정책에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홍장과 오장경의 정치적 반목이 조선 정부를 향한 장건과 이연호의 헌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갈등은 조선에서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884년 오장경의 사망과 원세개의 전향은 내부 정치 집단 간의 갈등 관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청의 조선 정책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

□ 주제어

조청관계, 임오군란, 내부갈등, 김창희, 동묘영접록, 장건, 이연호, 원세개

I. 들어가는 말

1882년 서울에서 발발한 임오군란은 병자호란(1637년) 이후 청이 200여 년 만에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사건이자, 조선의 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목단사 사건(牡丹社事件, 1874년)과 유구처분(琉球處分, 1879년)이 발생하면서 당시 청 조정 내부에서는 긴장감 속에 조선을 비롯한 속국과 속지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으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보다는 조선이 스스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권도(勸導)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은 청 조정의 대외 정책에서 기존 원칙과

방식의 변화를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문제는 조청 양국의 문제만이 아닌 복수의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여 있는 문제가 되었다.¹⁾

임오군란이 발발하기 이전, 청은 조선의 자주를 인정하고 있었다.²⁾ 그러나 1880년대에 들어 조선에서 발생한 두 차례 동란은 조선의 안정이 곧 본토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으며, 청의 관점에서 조선에 지정학적 중요성과 의의를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³⁾ 특히 1870년대 중반부터 1880년대 초까지 조선과 대만 등 변경에서 발생한 문제는 청 조정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청의 속국 정책이 변화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⁴⁾ 그러나

-
- 1) 陳偉芳(權赫秀 譯), 『淸日甲午戰爭과 朝鮮』, 白山資料院, 1999, 80~81쪽.
- 2) 陳偉芳(權赫秀 譯), 『淸日甲午戰爭과 朝鮮』, 18쪽. 19세기 이전까지 청과 인접 국가의 관계는 사실 군사·정치적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조공·책봉이라는 제도에 따라 서로 유지되고 있었다. 황제는 겉으로는 조공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청은 상국으로서 조공국에 병력과 물자를 징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때때로 조공국에 정치·재정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임오군란 시기 청의 파병은 상국으로써 조공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조선 정부 역시 내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 3) 김형중, 「청일전쟁 전후 청의 조선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동북아역사재단, 2018, 429~438쪽; 박영준, 「동아시아 패권전쟁으로서의 청일전쟁 재조명: 조선 정치세력의 대응정책 대립과 그 귀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2, 2023, 60~62쪽; 김봉준, 「해방론의 맥락에서 본 청의 속국 정책: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대(對)조선 정책의 변화」,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2022.
- 4) 앞서 언급한 장건과 이연호를 제외하고도 오대징, 주가록, 주명반 등의 인사가 조선에 대한 현책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吳大澂이 갑신정변 직후 조선에 와서 조선의 당론에 대해 저술한 『辨黨論』은 史部 雜史類로 분류되어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의 간행 시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으나 오대징이 청일전쟁 발발 후 督戰官으로 조선에 파견된 시기를 고려해보면 그 전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밖에 오대징과 관련된 규장각 소장 자료로는 『吳淸卿獻策論』이 있다. 이 책은 당시 청의 방식을 모범삼아 조선 정부에 제도 개혁 등을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求賢論, 育才論, 恤民論, 節用論, 練兵論, 緩刑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규장각 史部 詔令·奏議類에는 沈葆楨의 『沈文肅公政書』가 있으며, 증국번과 관

청 조정 내부 집단의 정치 관계와 국가 건설에 대한 구상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 정치 관계와 세력 구도는 대외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⁵⁾

이 글에서는 임오군란 당시 청 인사의 조선 헌책(獻策)을 청 내부 정치와 연관시켜 각 정치 집단 간의 관계와 현실적인 측면에 착안하였다. 이를 위해 임오군란 시기, 청에서 파견된 오장경(吳長慶, 1829~1884)⁶⁾ 휘하 경군(慶軍)⁷⁾ 소속 인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조선에 남긴 기록과 헌책(獻策)을 통해 청 인사의 조선 인식과 근대화 구상의 차이, 그리고 청 내부의 정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김창희는 임오군란 당시 영접관으로 청 인사에 대한 영접 사무를 맡았으며 조선에 출병한 청 경군 휘하의 장건(張謇,

련한 『曾文正公奏議』·『曾文正公奏議補編』가 분류되어 있다. 別傳類에는 『曾文正公家訓』(1873~1874), 『曾文正公大事記』(미상) 등 적지 않은 수의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曾文正公奏議』·『曾文正公奏議補編』은 설복성이 편집한 것이며 보편의 경우 간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청말 지식인인 鄭觀應이 杞憂生이라는 이름으로 저술한 『易言』이 있다. 이밖에 王奇英의 『時務通攷』이 있으며, 이 책의 저자인 왕기영은 당시 정세에 대해 서구식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5) 陳偉芳(權赫秀 譯), 『淸日甲午戰爭과 朝鮮』, 22쪽.

6) 조선 측에서는 오장경을 “중국제독(中國提督)”이라고 불렀으며, 이 명칭은 당시 조선 측에서 오장경과 같은 청군 지휘관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다(『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년) 7월 12일 병신 1번째 기사).

7) 경군은 경자영(慶字營)이 모태가 되는 군대이다. 오장경 부친인 오정향(吳廷香)이 여강(廬江)에서 3000 여 명의 단련(團練)을 모아 태평천국군에 대적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오정향 사후, 오장경이 이 군대를 이어 받아 여강과 서성(舒城) 등지에서 태평천국 진압하고 1868년 하남과 산둥, 직예 등지에서도 염군(揜軍)과의 전투에서도 공을 세움으로써 6개 영(營)으로 구성된 경군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 이후 오장경은 1880년에 절강제독과 광둥수사에 각각 임명되었다(이정희, 이해경, 「오무장공사 소장 유물과 화교사회」, 『중앙사론』 57, 2022, 229쪽).

1853-1926), 이연호(李延祐, ?-?)⁸⁾와 교류하였다. 김창희는 장건으로부터 『조선선후육책(朝鮮善後六策)』을 받았으며, 이연호에게서는 『조선부강팔의(朝鮮富強八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헌책은 김창희가 정리하였다.⁹⁾ 또한 김창희는 당시 영무처동지(營務處同知)의 직위에 있었던 원세개와도 만나 청 군영 내부의 사정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동묘영첩록』에 기록하기도 하였다.¹⁰⁾

8) 최우길 등 공역,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보고서, 2016, 7-10쪽. 이연호의 생몰연대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삼주합존의 번역본의 p.7에서는 이연호의 생몰연대를 1845년부터 1910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로 10쪽에서는 이연호의 정확한 생몰연대 등이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앞에서 밝힌 이연호의 생몰 연도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 千金梅, 「石菱 金昌熙와 南通文人 張謇의 交流」, 『溯上古典研究』 39, 2014, 142-143쪽; 『조선선후육책』과 『조선부강팔의』는 황준헌의 『조선책략』과 함께 『雜攷』(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고서(용재) 951.59 1)에도 필사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 주기는 다음과 같다. 朝鮮策略 / 黃遵憲(淸) 私擬. -- 朝鮮善後六策 / 張季直(淸) 著. -- 朝鮮富強八議 / 李瀚臣(淸) 著. -- 修信使金綺秀啓本 / 金綺秀(朝鮮) 著. -- [附錄].

10) 이밖에 청 인사의 조선 관련 기록으로는 주가록(周家祿)의 『奧移朝鮮三種』, 설배용(薛培榕)의 『東藩紀要』, 주명반(朱銘盤)의 『桂之華軒遺集』 등이 남아 있다. 또 周家祿의 『朝鮮國王世系表』, 『朝鮮載記備篇』, 『朝鮮樂府』 등을 보면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헌책보다는 조선에 대한 인식 및 문화에 관한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周家祿, 『奧移朝鮮三種』(淸光緒年間刻本), 沈雲龍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 42, 文海出版社, 1969, 17-21쪽. 아울러 김성남은 周家祿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薛培榕의 『東藩紀要』와 朱銘盤의 『桂之華軒遺集』 등의 기록도 여기서 다룬 바 있다(김성남, 「吳長慶軍營과 그 막료들」, 78-81쪽). 그리고 김구선은 김창희의 『石菱受柬』을 가지고 임오군란 시기 조선과 청 인사의 교류를 문학사의 측면에서 다루기도 하였다(金奎璇, 「金昌熙의 『石菱受柬』과 壬午軍亂 直後 韓中交流의 一面」, 『溯上古典研究』 39, 2014, 40쪽). 이 자료들에 관한 연구로는 김성남, 「吳長慶軍營과 그 막료들」, 『대동문화연구』 74, 2011; 유보전, 「청말 정치지식인의 조선 출사와 그 인식: 설배용의 『동변기요』 사례」, 『사림』 49, 2014을 참조. 그리고 위 세 자료 중 『동변기요』(奎中 5907-v.1-4)는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당

특히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조선 정부에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임오군란 시기 청 인사의 헌책과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당시 청 인사가 남긴 헌책이 조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현재로서는 제시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들을 영접했던 김창희(金昌熙, 1844-1890)¹¹⁾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시 조선 정부의 시책에도 영향을 주었다.¹²⁾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1880년대 중반부터 1894년 갑오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조선에 대한 청의 정책을 간섭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 변화된 청의 조선 정책이 어떠한 구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청 내부 정치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는 역사학계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¹³⁾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 군현

시 중군인사의 원문 자료 및 翁同龢, 薛福成, 馬建忠 등의 관련 기록을 수집·정리하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編, 『中國인이 본 임오군란 자료』(『海外韓國學資料 叢書』 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4)를 출간한 바 있다. 또한 임오군란을 주제로 한 국외 연구 가운데 張啓雄, 「宗藩對「獨立」: 朝鮮壬午兵變的國際秩序原理論述」, 『政治大學歷史學報』 40, 2013가 있으며, 張啓雄은 임오군란을 사례로 하여 중화 질서와 공법 간의 관계와 천하관의 변화를 연관시키기도 하였다. 이밖에 임오군란 당시의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청 인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열거해보고자 한다. 馬建忠의 『東行三錄』(1882), 朱銘盤의 『桂之華軒遺集』(1882), 薛培榕의 『東藩紀要』(1882), 등이 있다.

- 11)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12쪽. 김창희는 19세기 경화 사족의 일원으로 박구수, 김영작, 조면호 등과도 교류하였으며 북학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1865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 시절로 북경에 다녀온 적이 있다.
- 12) 노관범, 「1880년대 김창희의 경제 사상 : 임오군란 직후 부강정책의 재설정」, 『韓國思想史學』 35, 2010. 노관범은 김창희의 『六八補』를 분석하였으며, 조선 정부의 부강강병책이 동도서기론의 정치적 실천으로 보았다.
- 13) 19세기 이후 다양한 목적으로 조선을 찾은 청나라 관리들이 이전 세대보다 크게 늘었다. 전통적인 사행과는 달리 대외관계를 증재하기 위한 출사관료, 상무위원, 그리

론과 같은 적극적인 간섭을 주장하는 청류파와 외교적 방안을 통한 해결에 역점을 둔 양무파의 갈등 관계만으로 조선 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이해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관련된 청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밝힘으로써 청의 조선 정책에 숨어 있는 내막을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¹⁴⁾

그래서 이 글에서는 김창희가 저술한 『동묘영접록』에 수록하고 있는 장건과 이연호의 헌책을 비교하고 이 사례를 통해 조선 내에서 벌어진 청 내부 정치 갈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미진했던 『동묘영접록』의 원문을 재차 정리하여 이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¹⁵⁾ 19세기 말 청군 막료가 제시한 두 헌책은 청 내부 정

고 임오군란 및 갑오전쟁으로 출병하여 들어온 청 인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교류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김창희와 청 인사와의 교류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가 문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만 나열해보자면, 구지현, 「『석릉수간』을 통해 본 朝·淸 문사 교류 속의 『담설』」, 『열상고전연구』 39, 2014; 김성남, 「清代 朝行錄 傳承 現況과 特性」, 『人文科學』 46, 2010; 하정원, 「石菱 金昌熙의 古文作法 과 散文批評에 대한 一考」, 『漢文學報』 24, 2011; 千金梅, 「石菱 金昌熙와 南通文人 張謇의 交流」, 『洙上古典研究』 39, 2014; 김용태, 「壬午軍亂期 韓中文人의 交流 樣相 - 趙冕鎬, 金昌熙의 활동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17, 2007; 崔佑吉, 金奎璇共譯, 「壬午軍亂 직후 淸 從軍人士의 조선 내정 개혁안- 『三籌合存』의 해독을 중심으로」, 『洙上古典研究』 39, 2014 등이 있다. 김창희의 생애 그리고 김창희를 중심으로 한 교류에 관해서는 盧官汎, 「1880年代 金昌熙의 經世 思想」, 『韓國思想史學』 35, 2010를 참고. 다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양국 인사의 교류 자체와 문헌상의 특징, 그리고 문학사 및 사상사에서의 의의 등을 밝히고 있으나 사료적 가치와 헌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14) 이와 관련하여, 김봉준, 「朝淸 「奉天邊民交易章程」의 역사적 의의(1882-1883) - 章程의 協商過程과 條款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학보』 91, 2020; 姜博, 「1880년대 전후 淸의 朝鮮 事務 처리 기제의 재확립」, 『명청사학회』 57, 2022 등에서는 19세기 말 조선 정책에 관한 청 내부의 정치 관계와 갈등이 청류파와 양무파만의 갈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북양대신아문, 지방장군아문, 예부 등 다양한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5) 본문에서 인용한 『동묘영접록』의 원문은 최우길 등 공역,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치 집단의 각기 다른 개혁 구상을 비롯해 정치 집단 관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¹⁶⁾ 특히 청말 청의 내부 정치 관계를 구분했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과 관계를 고려하여 청 내부 정치 관계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¹⁷⁾

II. 慶軍의 조선 파견과 조청 인사의 교류 기록

1. 임오군란 전후, 회군 내 정치적 갈등 관계

1870년대 중반, 광서제가 즉위한 이후부터 해방(海防) 관련 논의는 단 순히 정책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전개되고 있었다. 천진교안(天津教案, 1870) 이후, 증국번에 이어 북양대신이 된 이홍장은 해방과 양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실 청 내부의 다른 집단과의 총체적인 합의에는 다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서울: 보고사, 2016의 것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원문에는 표점 기호를 누락하고 있거나 해석에서도 적지 않은 오류도 있어 재 표점과 교정을 거쳐 인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 16) 菊池秀明, 『ラストエンペラーと近代中國: 清末 中華帝國』, 講談社, 2005; 기쿠치 히데아키는 정치와 중요 인물과의 관계 등 다각도에서 청과 민국의 연계성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태평천국 이후 상계(湘系)와 회계(淮系)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양무운동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관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17) 조병한,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동양사학연구』 88, 2004, 133~135쪽. 조병한은 1870년대부터 시작된 양무운동은 1880년대에 들어와 내부의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내부 분화의 원인으로 양무파에 반대하는 청류파, 상군계를 비롯하여 이홍장 집단 내부의 경쟁을 지목하고 있다. 청류파의 역할과 정치 경향·계파에 관해서는 陳勇勤, 「晚清清流派思想研究」, 『近代史研究』, 1993를 참조.

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¹⁸⁾ 심지어 같은 회군 계통의 이홍장과 오장경도 반목 관계가 이는 정책 구상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내포되어 있었다.

우선 임오군란 전후 오장경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장경은 태평천국의 난 당시 증국번 휘하에 있으면서 1861년에 경군의 모태가 되는 회군(淮軍)의 경자영(慶字營)을 편성·지휘한 유력 장군으로 태평천국군과 염군(揜軍)을 진압하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¹⁹⁾ 그리고 1882년 초, 청불전쟁이 발발하자 경군을 이끌고 마침 산둥 등주(登州)로 이동해 있던 중에 조선의 변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²⁰⁾

1882년 6월 9일, 서울에서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청 조정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월남 등지로 파견을 위해 마침 등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오장경의 경군을 곧바로 조선에 파견하였으며, 경군은 신속히 조선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고 서울에 주둔하였다.²¹⁾ 임오군란의 발발 직후, 주조선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는 신속하게

18) 조병한,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151쪽. 조병한은 이홍장의 양무와 해방을 보수적이고 수세(守勢)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보인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최고 권력자인 자희태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류파와 상군계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19) 경군 소속 막료들은 경군이 회군에 편입됨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회군 소속이었다. 당시 경군의 주요 인사로는 장건, 주선민(朱先民), 황사림(黃仕林), 방정상(方正祥), 오조유(吳兆有), 장광전(張光前), 곽춘화(郭春華) 등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 산둥, 하남, 직예 등지의 전장에서 오랫동안 오장경을 따르던 경군 소속 막료들이며 대부분 안휘 출신이었다. 在朝鮮近藤臨時代理公使가 外務卿井上馨에 보낸 보고 공문, 1884.5.30, “京城事變後景況ノ件”, 「朝鮮國京城駐留清國兵營六營ノ內三營撤却歸國ノ報告」,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이정희, 이해경, 「오무장공사 소장 유물과 화교사회」, 230-231쪽에서 재인용)를 참조.

20)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7, 94-142쪽.

21) 오장경과 경군의 조선 파견 및 진압 과정을 타임라인의 형식(음력 기준)으로 대략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파견 이전 장건의 역할과 진압 과정에서 원세개의 활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응하여 출병과 진압에 관한 공문을 조선 정부 측에 미리 발송하였으며, 청의 경군보다 이틀 전에 일본 군대가 제물포에 도착한 상태였다. 반면 경군은 일본군보다 늦게 도착했으나 앞서 군란의 수뇌인 손순길(孫順吉), 공지원(孔致元), 최봉규(崔奉圭) 등을 이태원과 왕십리 등지에서 체포하여 반란의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다.²²⁾ 이에 따라 일본보다 먼저 사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으며, 진압 직후에도 청은 조선에서 일본보다 우세한 형세에 오를 수 있었다.²³⁾

조선에서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오장경은 경군 여섯 영(營)을 각각 中·正·副·左·後·前으로 나누어 서울 각지에 주둔하게 하였다. 오장경의 본대는 서울 동쪽 광희문 내 하도감(下都監)에 주둔하고, 부장 황사림(黃仕林)은 남단(南壇), 오조유(吳兆有)는 동별영(東別營), 장광전(張光前)은 염초청(焰硝廳), 원세개(袁世凱)는 삼군부(三軍府) 등으로 나누어 서울 내 요충지에 두었다. 청 조정에서는 아직 일본 측과 군사적 충돌이 다시

1882년, 6월 9일, 임오군란 발발 → 서리북양대신 장수성이 조선에 파병을 결정 (당시 이흥장은 상중) → 6월 24일, 북양수사제독 정여창이 장수성의 서신을 가지고 등주에서 오장경과 회담 → 6월 26일, 오장경은 장건 등을 대동하여 친진에서 파병 문제를 상의 → 6월 29일, 오장경이 등주로 복귀, 곧바로 파병 준비에 착수 → 6월 30일, 장수성이 조선 난당의 진압을 위해 오장경의 파병을 상주 → 7월 초4일, 오장경이 선발대 2,000명과 등주에서 출발 → 7월 초7일, 마산포에 정박 → 7월 10일, 원세개를 선봉으로 경군이 서울을 향해 북상 → 7월 12일 서울에 주둔 → 7월 13일, 흥선대원군을 체포 → 7월 15일, 왕십리·이태원 일대에서 진압을 종료.

*출전: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7, 100~120쪽.

- 22)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p.100. 반란 진압의 성공으로 오장경은 청 조정으로부터 경기도위(輕車都尉)의 작위를 제수받았다. 오장경은 1884년 5월 청과 프랑스의 관계가 다시 긴장되자 북경 방어를 위해 오장경의 경군 3개 영을 금주(金州)로 이동시키라는 명에 따라 조선을 떠나게 된다.
- 23) 임오군란의 경과 과정과 일본 측의 대응에 관해서는 김종학, 「임오군란」, 동북아역사재단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동북아역사재단, 2018, 242~254쪽을 참조.

촉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군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아직 불안정한 상황과 만일의 사태를 염려한 조선 측의 요청으로 철수는 보류되었다.

이홍장은 오장경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군을 장악하고자 마건충을 보내 경군을 통솔하게 하고 오장경을 본국으로 소환시키는 지시를 내렸다. 이홍장의 소환 지시를 두고 장건은 오장경에게 이를 받아들이지 말고 사퇴로 항의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오장경 역시 처음에는 장건의 건의에 동의하였으나, 원보령(袁保齡)과 주복(周馥)이 중재에 나서 오장경에게 사퇴를 만류하였으며, 이홍장 역시 오장경의 소환을 보류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마건충에게 경군의 지휘권을 받게 하려는 계획 또한 일단 보류되었다.²⁴⁾

그러나 1883년, 오장경이 먼저 광서제에게 주(奏密陳駐防朝鮮情形))를 올려 본국으로 돌아가 자희태후와 광서제에게 조선의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 조정에서는 조선이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주둔군의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단 오장경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장경의 상주는 이홍장과 의 갈등을 다시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홍장은 즉각 오장경에게 인편을 보내어 불만을 표시했으며 경군이 오장경의 군대가 아닌 북양대신의 지휘계통 아래에 있음을 당부하였다.²⁵⁾

장건의 『조선선후육책』이 세간에 알려진 것도 이때였다. 특히 夏冬波는 장건의 『조선선후육책』이 이홍장과 오장경의 갈등이 외부로 표면화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계기로 보고 있다. 즉 『조선선후육책』의 내용에는 오장경의 의향이 질게 반영되어 있으며, 북양대신아문의 방침에 부정

24)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157~161쪽.

25)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160쪽. 夏冬波는 오장경과 이홍장의 갈등 관계를 주로 장건의 기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즉 오장경·경군과 이홍장·북양대신아문의 대립에 장건 또한 오장경의 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이홍장과 오장경의 정치적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조선선후육책』의 주장이 청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나 외부로 유출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이홍장은 장건의 주장이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비화 되어 일본에 조선 진출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었기에 『조선선후육책』의 방안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나 『조선선후육책』의 내용이 이후에 청류파가 이홍장의 외교 방침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홍장과 오장경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884년 월남 지역에서 청불전쟁이 발발하자 오장경은 재차 주를 올려 경군을 월남으로 이동하게 해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절강순무 유병장(劉秉璋) 또한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경군을 절강으로 보내 방비를 강화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홍장은 오장경과 경군을 조선에 묶어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군의 이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1884년 초, 프랑스 함대가 천진까지 올라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통정사참의 연무(延茂)는 다시 한번 오장경의 군대를 금주(金州)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조정에 건의하였으며, 마침 천진에 와 있던 오장경이 이홍장과 만나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경군의 일부를 금주로 이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군 6영 가운데 전영(前營)·중영(中營)·정영(正營) 3개 영이 금주로 이동하고 좌영(左營)·후영(後營)·경부영(慶副營)은 조선에 남겨 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오장경은 직접 3영을 이끌고 금주 유가둔(劉家屯)에 주둔하였으나 곧 병을 앓고 7월 13일에 사망하였다.²⁸⁾

26)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143쪽.

27)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143쪽.

28) 오장경의 사망에 대해 조선 측에서는 예조참판 승품관(崇品官)을 보내 조문했다(고종21년(1884년) 6월 10일 임오 두 번째 기사, 『고종실록』 21권).

2. 영접관 김창희와 청 인사의 교류

다시 군란이 종료된 시점으로 돌아가 양국 인사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군란의 진압 직후, 조선 측 영접관 김창희는 장건과 이연호를 접견했으며, 여기서 김창희는 이 두 인사로부터 조선의 시무(時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장건과 이연호 또한 조선 정부의 개혁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김창희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김창희를 이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 남아 있는 김창희와 청 인사의 교류 상황과 관련 기록으로는 『석릉수간(石菱受柬)』, 『대진척독(大陳尺牘)』, 『동묘영접록(東廟迎接錄)』, 『담설(譚屑)』, 『육팔보(六八補)』, 『이설(二說)』²⁹⁾ 등이 있다. 문집인 『담설』³⁰⁾을 제외한 『대진척독』, 『동묘영접록』, 『육팔보(六八補)』에는 김창희와 청 인사와의 교류 기록뿐만 아니라 장건과 이연호의 헌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각 책에 중복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규장각 소장 집부(集部) 자료 중 김창희의 『석릉집(石菱集)』은 김창희의 아들인 김교헌(金敎獻)이 1898년에 간행한 것으로 여기에는 『육팔보 상편(六八補上篇)』, 『육팔보 하편(六八補下篇)』과 『담설 상편(譚屑上篇)』, 『담설 하편(譚屑下篇)』 그리고 『북정기유(北征記遊)』가 포함되어 있다.³¹⁾ 같은 규

29) 張謇, 李延祐 著, 『二說』(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古 951.054 Y67i).

30) 이 『담설』은 김창희 자신의 생애를 반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김창희의 학문과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는 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장건이 이 책에 높은 평가를 주기도 했으며 19세기 후반 조청 문인들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의 제작 시기는 1883년이며,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청구기호는 古0320-1이며 총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石菱集』의 규장각 청구기호는 一纂古819.55-G415s-v.1-3이며 총 12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김창희 자신의 전기와 문집, 그리고 자기 가문과 관련된 저술인 『辭吏曹參議疏』, 『答右人論文四首』, 『鈍齋說』, 『四品集選序』, 『日休堂記』, 『四品集選跋』, 『先考禮曹判書文貞公府君家狀』, 『會欣頌上篇』, 『會欣

장각 집부(集部) 자료 중 『대진척독(大陣尺牘)』은 김창희가 조선에 파견된 청의 관원들과 주고받은 서한을 위주로 하고 있다.³²⁾

김창희가 접견한 청 인사 가운데 장건은 경군의 막료 중 한 명으로 오장경을 기리기 위한 제문인 <오공장경수정빈리장사제명(吳公長慶隨征賓吏將士題名)>의 가장 첫 번째 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막료이자, 임오군란 발발 직후 천진에서 오장경이 장수성과 조선 출병을 논의할 때 오장경 바로 옆에서 수행한 막료였다. 임오군란 직전 장건의 행적을 보면 그가 경군 내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출병한 1882년 당시에 오장경은 경군 내에서 중요한 막료이자 오장경의 측근으로 대우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³⁾

반면, 이연호에 대해서는 세간에 정확히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오공장경수정빈리장사제명>에는 지응소지현(支應所知縣)의 직에 있었다는 것과 그의 출신이 안휘 회녕(安徽懷寧) 출신이라고 적혀있을 뿐이다. 다만 『조선부강팔의』에서 이연호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그가 장년의 무관으로 십여 년간 여러 해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견문을 익혔으며, 임오군란 발발 직후에는 경군에 종군하여 조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穎下篇, 『月城家史上篇』, 『月城家史下篇』 등이 『石菱集』에 수록되어 있다.

32) 『대진척독』의 규장각 청구기호는 古 2410-2-v.1-2이며, 총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 시기는 1884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1책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규장각의 것과는 다르다. (천금매, 「石菱金昌熙와 南通 文人 張謇의 交流 : 임오군란 직후 교류척독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9, 2014, 126쪽) 『대진척독』을 다룬 국내 연구로는 현재까지 천금매의 논문이 유일하다. 이 논문에서는 『대진척독』을 최근에 발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석릉수간』에도 이 척독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만 천금매의 연구는 김창희와 청 관원과의 문학적 교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역사적 배경과 당시 조선의 정황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따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이정희, 이혜경, 「오무장공사 소장 유물과 화교사회」, 231쪽. “〈표 2〉 오공장경수정빈리장사제명’ 비석에 기재된 막료, 장수, 중급 장병 목록”.

임오군란 전후 이연호의 행적에 관해서는 대만 동해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만전도(臺灣全圖)』를 통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881년에 제작된 이 지도는 이연호가 제작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이연호가 조선에 오기 전에는 대만 일대를 시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또한 이연호는 대만을 시찰한 이후에 『치대만십의(治臺灣十義, 혹은 臺灣十義라고도 한다)』를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책의 제목만 전해지고 있으며 유실된 것으로 추측한다.³⁵⁾ 임오군란 직전 이러한 이연호의 행적을 보면, 이연호의 헌책과 그 구상은 조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과 『조선부강팔의』와 유실된 『치대만십의』의 유사점에 대해서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듬해인 1882년에 이연호는 임오군란의 진압을 위해 파견된 경군에 종군하여 조선에 도착했으며 영접관으로 나온 김창희와 교류하고 그에게 헌책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창희는 조선 내정에 대한 장건과 이연호의 의견을 청할 수 있었다. 이후 이연호로부터 『조선부강팔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건은 청으로 돌아간 이후 8월에 김창희에게 『조선선후육책』을 전달하였다. 이후 김창희는 이들의 글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담아 각각 『선후육책보』와 『부강팔의보』, 『부강팔의재보』를 작성하였으며, 『선후육책보』와 『부강팔의보』를 한데 묶어 다시 『육팔보(六八補)』로 정리하였다. 특히 장건의 『조선선후육책』은 김창희에게 전달되고 난 이후, 김홍집 등 조선 정부의 관료들도 이 책을 열람하였으며 고종에게까지 알려지기도 했

34) 郭明芳, 「談『臺灣地圖總圖』及其副本」, 『東海大學圖書館館刊』第36期, 2018.12, 55쪽. 鄧衍林 編, 『中國邊疆圖籍錄』, 商務印書館, 1958에는 이연호가 1881년에 제작했다고 하는 臺灣輿圖가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의 자세한 수록 사항은 “李延祐製, 『臺灣全圖』, 清光緒7年(1881) 繪本 一幅(色繪), 版框 116.0×62.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제작자의 정보 및 제작 경위 등은 밝혀져 있지 않다.

35) 시기와 이연호의 구상 등을 고려했을 때, 『치대만십의』에는 그가 1882년에 저술한 『조선부강팔의』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³⁶⁾ 그렇다면 이 두 청 측 인사는 어떠한 목적에서 김창희에게 헌책을 건네주었을까? 그 내막과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장건·이연호의 헌책 비교와 정치적 입장

1. 인사·내정 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둔 장건의 헌책

우선 장건의 『조선선후육책』의 조목 중에는 「破資格以用人才」·「嚴澄叙以課吏治」·「謀生聚以足財用」·「改行陣以練兵卒」·「讓防團以固邊陲」 등이 있으며, 장건은 『조선선후육책』의 서두에서 조선의 문제는 내부 요소와 제도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당시 조선 정부와 내정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오늘날 조선의 변고는 외교에서 말미암은 것인지도 알 수가 없으며 서리가 쌓이면 얼음이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해가) 점점 쌓여 폭발한 것이지 외교에서 시작된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무턱대고 구차하게 외교에만 힘을 쏟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곳을 구제하지 않으려 한다.”³⁷⁾ 라고 하면서 조선의 문제는 외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정 문제의 누적된 폐해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³⁸⁾ 또 장건은 먼저 내정을 다지고 기존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36) 千金梅, 「石菱 金昌熙와 南通文人 張謇의 交流」, 142~143쪽. 또한 청에 있는 옹동화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23쪽. “朝鮮今日之變, 無不知由外交, 而屬露堅冰, 歧漸之積, 不自外交始也. 善其後者, 苟斤斤外交是務, 而不復求諸本頂之地, 甚至如日本變其數百載之衣服制度, 以優俳西洋, 自謂可立致富強之效, 此其弊, 非徒無益而已”

38) 吳大澂, 『吳清卿獻策論』(한국학중앙연구원 所藏本), 1卷1冊. 吳大澂의 獻策

우선이라고 하면서, 외교에만 치중하거나 광산 개발, 새로운 기구의 설립 등 기존의 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인심을) 통하게 하는 방도에는 네 가지가 있다. 광산을 여는 일과 같이 사람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되며, 의복 제도 등을 바꾸는 것처럼 생소한 일로 사람들을 겁먹게 해서는 안 된다. 채무를 빌려주거나 이자 높음 등과 같이 수단(術)으로 사람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무아문을 설치하는 일로 사람을 사사로이 봐서는 안 된다. 모든 행위는 신중하고 간절해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군주와 재상이 영민하다면 비상 시에는 잠시 뜻을 굽혀 외교를 임기응변으로 변통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같이 한다면 크게는 와신상담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봉당이 서로 모함하고 선동을 일으키려는 짝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6, 7년, 짧게는 3, 4년 안에 화가 연이를 것이니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³⁹⁾

的詳細節目如下：「求賢論」, 「育才論」, 「恤民論」, 「節用論」, 「練兵論」, 「緩刑論」. 참고로 오대징 역시 1884년 12월, 갑신정변의 조사를 위해 조선에 들어왔으며, 이때 현책을 작성한 바 있다. 이 현책에서 오대징은 장건·이연호와 마찬가지로 조선 왕실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오대징 역시 장건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의 봉당 등 정치에 원인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오대징은 당시 청에서 시행 중이던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에서는 서원 중심의 교육 및 인사 개혁이 필요함을 밝히며 청의 방식을 따를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권혁수는 오장경을 청류파 인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사한 현책을 했다고 해서 장건 또한 청류파로 갈무리하는 것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權赫秀, 『吳清卿獻策論』을 통해 본 淸政府의 對朝鮮 干涉政策, 『藏書閣』 4, 2000, 225쪽).

39)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25쪽. “而通之之道有四：不苦人以所不樂爲，如便議開礦等事；不怯人以所不習見，如盡改服制等事；不愚人以術，如以借債興利等事；不視人以私，如另設機務衙門等事。一切

여기서 장건은 앞서 외교는 외국과의 급선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변통으로 활용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외교에만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장건은 『동묘영접록』에서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장건의 이러한 견해에는 청 내부의 정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오장경의 경군과 이홍장의 북양대신아문과의 갈등 관계를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에 대한 장건의 언급은 아래와 같다.

“장건이 말하길……이후 반드시 마건충이 (조선에) 올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은 있으나 마음의 본바탕은 그리 밝지 않으며, 공적과 명예만을 쫓는 인사입니다. 이곳에서 문제를 처리할 때 옛것을 어기고 시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려고만 할 것입니다. 민심을 잃으면 일을 그르치게 되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이홍장은 오로지 양무를 논하기만 좋아하니 대사께서 세간의 기호와 인척을 맞출 수는 있을지라도 서로 뜻을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귀국에 문제가 생기면 이홍장은 앉아서 보기만 하고 결코 군대를 보내어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 것입니다. 또 마건충과 같은 부류는 정세를 오관할 것입니다. 이번에 파병 나온 군대는 이홍장이 보낸 것은 아니라 오장경 공께서 귀국을 위해 힘을 쓴 것이나 누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⁴⁰⁾

作爲，懇懇勲勳，使人絕不疑，於君相而曉然知屈意外交特一時權宜之舉。如此則大可收臥薪嘗膽之效，小亦泯朋黨構煽之萌。否則遠而六七年，近而三四年，禍且踵至，何治之可圖。”

- 40) 「壬午年(1882)7月26日」, 李王職實錄編纂會編, 『東廟迎接錄』, 韓國學中央研究院, 1929. “張(鑾)曰……此後必馬眉叔來, 此人有時才而心地不光明, 乃急迫功名之士。爲辦理此間, 必違古而迎時。失衆而敗事, 却不可不慎……李傅相專喜談洋務, 大帥雖其世好姻親而意見不相融洽……如貴國有事, 李相坐視, 必無出師之理。但似眉叔輩, 誤其事機而已。此次之師, 賴李相不在, 張公得以出力貴邦, 人何能知之?”

위에서와 같이 장건이 표면적으로 밝힌 견해는 외교에만 치중하는 방안은 현안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장건이 마건충의 조선 방문을 경계하고 있는 것 또한 이홍장의 측근인 마건충의 조선 방문이 오장경과 경군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김창희는 『만국공법』의 실효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 문의에 대해 장건은 만국공법이 외교사안의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해결책이나 원칙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장건은 교섭을 우선으로 하는 이홍장의 방식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며, 조선의 문제는 내부 개혁의 현실적인 조건과 직접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⁴¹⁾ 이러한 장건의 답변은 이홍장이 가지고 있는 구상에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富強과 海防을 중심에 둔 이연호의 헌책

다음으로는 『동묘영접록』에 장건의 헌책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 이연호의 헌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연호는 조선에서 『조선부강팔의(朝鮮富強八議)』, 『용막십의(戎幕十議)』, 『부개매철금광의(附開煤鐵金鑛議)』, 『환우담초(皖友譚草)』를 저술한 바 있다. 이연호는 주로 세수(稅收) 확충,

41) “我曰：『萬國公法未當有不戰而使給兵費者。吳大帥，馬觀察，何不一爭於花房乎？且其數何其夥多也。』張曰：『閣下所見極明熟。看公法者，只知有例中照據，未曉無例可勿論。花房此次張大聲勢，卽恐喝之伎倆耳。馬眉叔未免有錯。大帥退謂其不然，已函告中朝，說此邦不堪重累。眉叔亦少變其說，勸花房減之。愚見當初只十萬爲可。』我曰：『不給(三)則已，給則十萬似文。賴李相不在，張公得以出力貴邦，人何能知之。』 임오년(1882년) 8월 초10일, 李王職實錄編纂會編, 『東廟迎接錄』, 韓國學中央研究院, 1929(http://yoksa.aks.ac.kr/jsp/aa/VolView.jsp?aa10no=kh2_je_a_vsu_22440_001&aa15no=001&aa20no=22440_001_0006, 검색일: 2023년 7월 31일).

광산 개발, 토지 개간, 물자 유통, 운선 제작, 학교의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을 역설하였으며 통상과 외교를 통한 부국강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응막십의』에는 김창희와 이연호의 문답 내용이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부개매철금광의』의 주요 내용은 광산업의 개발과 무기 제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개혁의 방침과 실행 방안에서 장건의 헌책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⁴²⁾

이연호의 『조선부강팔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대로 「籌商務以收利益也」, 「開礦井以裕財用也」, 「清田畝以興屯墾也」, 「通銀鈔以便市廛也」, 「置輪船以練水師也」, 「簡營伍以資戰守也」, 「據形勢以固海防也」, 「設學院以儲人才也」 등이 있으며,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제도의 도입, 운선을 비롯한 군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연호의 구상은 『조선부강팔의』의 서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

“듣건대, 백성을 지키는 것에는 부국(富國)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나라를 보위하는 것에는 강한 병사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옛 관자가 제나라를 다스릴 때도 관산부해(官山府海)에서 나온 재정으로 부흥할 수 있었으며, 궤리연향(軌里連鄉)의 제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방치되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 시행되니 폐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니 이전의 사례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 팔도의 땅은 비옥한 땅이 수천 리나 있고 백성들도 번성해 있습니다. 풍속 또한 문박(文樸)하니, 시세를 살펴 이익을 끌어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클 것입니다.”⁴³⁾

42) 『譚屑』(규장각 청구기호: 古0320-1, 總2卷1冊)은 金昌熙의 문집으로 저술시기는 1883年이다. 이 문집의 내용에는 김창희의 생애와 학문 그리고 정치적 견해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장건은 이 문집을 높이 평가를 하기도 했다.

43)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38쪽. “蓋聞衛民必先於富國, 保邦莫要於強兵, 昔管子治齊, 興官山府海之財, 創軌里連鄉之制, 百廢俱舉, 霸業卒成, 此前事之效可徵焉. 今案朝鮮八道之地, 沃野數千里, 生齒

이연호와 이홍장의 관계에 대한 근거는 『동묘영접록』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김창희와 이연호의 대담을 살펴보면, “내가 이한신(이연호)를 만나 물으니, 이중당(이홍장)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연호가 말하길, 이중당께서는 널리 인재를 받아들이며 자강의 길을 찾고, 바다의 강계(疆界)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천진의 포대와 포병 부대는 서양인도 탄복하고 있습니다……내년 봄에는 중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수사(水師)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⁴⁴⁾ 라면서 이홍장의 정책을 지지하는 뜻을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이연호의 『조선부강팔의』에는 이홍장의 구상과 정책이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이 추진하고 있던 해방과 관련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⁴⁵⁾

『조선부강팔의』에서 이연호는 통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광산 개발과 화폐 유통을 시행할 것을 김창희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운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상뿐만 아니라 유사시 군사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양의 신식 무기와 기술, 그리고 신식 제도를 강조한 것으로, 제도가 완비되고 재정 및 무기의 확충이 뒤따른다면 곧 어렵지 않게 국가의 부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즉 조선 정부가 제도를 변통하고 항구를 개방하여 다른 국가와 교역을 활성화한다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군비를 충실하게 갖추면 국

蕃滋, 風俗文樞, 苟揆時勢以導利, 固大有可爲也. 斡旋全局, 有治法, 貴有治人, 近日所最要者, 約有八焉.”

44) 1882年8月9日, 『東廟迎接錄』. “我見李瀚臣(李延祐)問, 李中堂之爲人. 李(延祐)曰, 李中堂廣收人才講求自強之道, 海疆賴以無事……天津砲臺砲隊亦爲西人佩服……明春將仍往中堂處, 治水師耳.”

45) 김성남, 「吳長慶軍營과 그 막료들」, 346쪽.

가를 보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⁴⁶⁾ 그리고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해 다른 국가의 사례 가운데 청의 초상국(招商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구의 설립 또한 시세(時勢)에 맞춰 조선이 변통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據形勢以固海防也」에서는 통상항구가 가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부산(동래)과 같은 항구를 중심으로 한 자원과 물자의 유통이 전시(戰時)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니 항구에 역점을 둔 개발을 강조하였다.⁴⁷⁾

이러한 이연호의 구상은 당시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이 추진하던 양무 및 해방 정책과도 일치한다. 이연호는 해방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해안 포대 및 해군 양성은 곧 군사적인 위협에서 국가를 보전하는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밝혔다. 즉 이연호의 구상은 제도의 개혁, 통상·무역이 곧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국가를 지키는 구체적인 실행 방

46)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40쪽. “日臻, 寓餉於賈也。今既與之通商立約, 從此各商雲集於國中。設百貨暢銷, 將見源源而至, 必致民財外益, 莫塞漏卮。若僅恃關權, 收十一之稅, 雖仿英國進口之貨, 稅倍出口, 以利計之, 終恐無盈有絀。海禁況開, 必求裨益, 此不得不亟思因變達權以興互市之利。如煤鐵絲茶, 爲西人需用大宗, 急宜教民講求采製, 此外八道士, 皆可互相貿易……再仿中國招商局章程, 合商湊股, 每股百金爲一票, 每人或一股數十股百餘股, 均可入夥。創始之年, 集資六十萬, 以十萬在漢江口釜山浦, 設局立準, 再以十萬在和約之國近處, 先立口岸。餘四十萬, 購造商船四號, 船長二十餘丈, 艙深可載千餘噸, 分泊漢江釜山。凡本國貨物主來運販, 逐年添股開埠增船……東賣日本之長岐, 橫濱, 大板, 神戶, 箱館, 南賣中國之天津, 烟台, 上海, 寧波, 及於閩, 粵, 遠極新加坡, 新舊金山, 以迄英美德法諸邦, 市易日廣, 商舶日多。其有羨贏, 以充軍實, 有事載兵轉糧, 供億自便, 准望在熟諳商務之員, 乘時籌畫, 內求實事, 外睦隣交, 豈非因變計而收補救之效乎”。

47)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55쪽. “七曰, 據形勢以固海防也, 凡此數口, 分築砲臺, 訓練水師, 戰艦聲勢相聯。永爲重鎮, 然築臺之法, 以三夾土爲牆。砌石爲基, 下廣上銳, 外濠內池, 子藥之庫, 藏於臺後, 駐兵之房, 圍在牆中, 巨砲獨中要害, 群砲密布爲援。臺前臨海, 有急溜砂, 背倚山林, 有轉運捷徑, 踞高恃遠攻之勢, 對岸收夾擊之功。”

안과도 연결되며 이는 곧 해방이라는 목표로 귀결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⁴⁸⁾

장건과 이연호의 사례에서 보듯, 대외 정책을 비롯하여 근대화, 즉 “양무(洋務)”에 대한 청 내부에 대한 구상과 정책은 통일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청 내부에서는 북양대신아문이 주도하는 통상과 외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이는 비단 오장경과 장건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방장군 등 여러 집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으며, 각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다른 집단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는 특정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논증할 때 청류파와 양무파로 대표되는 양자 경쟁이 아니라 집단 간의 다중집단경쟁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 집단의 경쟁은 곧 대내·외 정책의 실행에 관한 대립으로 표출되었다.⁴⁹⁾ 장건과 이연호의 각

48) 이연호와 이홍장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유원의 『嘉梧叢略』에 있는 기록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 기록은 이유원이 이홍장 및 유지개(游智開)와 진행한 대화로, 여기서 이홍장과 유지개의 발언에는 위에서 본 이연호의 주장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橘山尊兄太師閣下：前由永平游太守……能否相安。彼國自平秀吉以來，恃其詐力，囂然不靖，近者西鄉隆盛，弄兵潢池，不戢自焚。彼君臣見國小多難，殷鑒不遠，或者漸知守分。往歲中國駐倭公使何侍講前赴東洋，僕以貴國交涉之事，用爲耿耿。屬令留意體察，隨時調停，旋接何侍講來書，知日本近以俄人狡焉，啓疆貪得無已，頗思戒備。懍然如猛虎在臥榻之旁，其於貴國，不特並無惡意，似欲聯爲輔車，引爲唇齒，頗疑貴國不肯傾誠相待。僕揆度大勢，泰西英美各邦，相距過遠，志在通商，無利人土地之心。俄跨有三洲邊境，實與我東北各界毗連，又時以蠶食鯨吞爲事。貴國與日本，濱臨東海，俄國兵船，游奕窺伺，而終不能免。當猶虞虢之備晉，韓魏之畏秦也。前聞日本欲在貴國咸鏡道之元山津，開口通商，俄人陰相勸阻，謂他日設有戰事，恐於日本商務有礙。英人囑日本介紹通商，俄復勸止之。”(『嘉梧叢略』11, 「答肅毅伯書」2; 『高宗實錄』高宗16年7月9日; 『清季中日韓關係史料』2, 문서번호 329의 附件一, pp.398-401).

49) 일례로 비슷한 시기 육로호시의 개정에 관해 북양대신아문과 봉천 지역의 지방장군아문이 대립하기도 하였다. 호시 개정을 둘러싼 청 내부의 갈등에 관해서는 김봉

기 다른 헌책은 조선에 대한 정책을 매개로 한 이홍장과 오장경 집단 간의 반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책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 있던 김창희는 「선후육책보(善後六策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책들은 전부 중국에서 빌려 온 것들이다. 그래서 역대(歷代)를 논할 때는 꿈이 아니지만 꿈을 읊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그래서 장건이 선후를 두고 말하면서 ‘무턱대고 구차하게 외교에만 힘을 쏟고 문제의 모든(문제의) 근본이 되는 곳을 구제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스스로 부강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폐단이 무익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 근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외교의 요지라고 할 수 있으니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외교의) 중요함을 알면 빈약한 형세도 점점 부강의 기초로 바뀔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함을 모른다면 부강의 기술은 반대로 위험과 혼란의 싹이 될 것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⁵⁰⁾

앞서 언급한 『조선선후육책』과 『조선부강팔의』, 이 두 헌책은 조선의 내정 개혁에 대한 건의안을 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과 의도에 서 저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창희가 『육팔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연호가 새로운 기구의 창설, 통상 및 군비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반해, 장건은 조선 내부에 있는 병폐를 인사 제도의 개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준, 「조청 「봉천변민교역장정」의 역사적 의의」, 『중국학보』 91, 2020을 참조.

50)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61쪽. “我國人士所讀之書, 皆爲借購中國, 談說歷代, 無非夢占白夢……季直纔(張謇)開口, 便說善其後者, 苟斤斤外交是務不復求諸本原之地……蓋以求本原爲外交之要, 非謂外交不可也. 得其要, 則貧弱之勢, 漸化富強之基, 不得其要, 則富強之術, 反滋危亂之萌, 可不慎哉.”

한 보수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점과 실행방식에 서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⁵¹⁾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김창희는 이연호보다 장건의 구상이 가지고 있는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당시 조선의 정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적지 않은 재정과 국력을 소모하는 방식보다는 개혁으로 인한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개혁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외부의 간섭과 개입을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V. 원세개의 전향을 통해 본 내부 갈등의 윤곽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건과 이연호의 헌책과 그 차이는 개인적인 견해 일뿐 집단의 대립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각기 다른 두 헌책의 내용만 가지고 집단 간의 정치적 대립을 확증하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와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오장경 사후, 1884년에 있었던 원세개의 사례는 당시 경군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윤곽을 드러내고 경군 내에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1882년, 당시 원세개는 장건 등에 경군의 다른 막료와 비교하면 비교적 늦게 경군에 합류하였으며 조선에 도착한 직후에는 경군에 소속되어

51) 최우길 등,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8~9쪽. 2016년에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 삼주합존』이라는 제목으로 앞의 세 편에 김창희가 쓴 『부강팔의보』, 『육책팔의재보』를 묶어 최근에 발간된 바가 있다. 『삼주합존』은 장계직과 이한신의 글에 김창희가 답하여 쓴 세 가지 주를 묶은 것을 의미한다.

있었다. 원세개는 경군이 마산포에 도착하고 나서 서울로 상경할 당시 경군의 선봉에 섰으며, 서울에서 전개된 진압에도 공을 세우기도 했다. 원세개는 영무처동지(營務處同知)라는 하급 군관에 지나지 않았으나 김창희와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⁵²⁾

임오군란 당시 원세개는 김창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김창희에게 경군의 막료 중 한 사람으로서 시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당시 원세개의 행적은 김창희가 남긴 『동묘영접록』과 다른 막료의 기록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김창희와 교류한 기록을 보면 원세개는 다른 경군 막료와 마찬가지로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을 아래와 같이 부정적 시선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세개가 말하길, 교섭하는 사람들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자중하려고만 합니다……제가 귀국(조선) 사람은 비난하지는 않으나 중국 사람만큼은 비난하고자 합니다……귀국이 반란 세력을 제거한 일은 위급한 병을 제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양하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으나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북양(대신아문)은 오로지 통상과 교섭에만 힘을 쏟고 있으니 호랑이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⁵³⁾

여기서 원세개가 언급하고 있는 “교섭하는 사람들(交涉之人)”은 곧 이홍장과 마건충 등 북양대신아문의 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발언에서

52) 이정희 등, 앞의 글, 234쪽; 유춘근, 「幕友 張謇과 袁世凱」, 『중앙사론』 6, 1989, 312쪽. 원세개가 경군에서 처음 받은 직책은 前敵營務處의 差使職이었으며 이는 장건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53) 1882年7月26日, 李王職實錄編纂會編, 『東廟迎接錄』, 한국학중앙연구원, 1929. “袁(世凱)曰, 交涉之人, 挾日本朝鮮以自重, 弟非罵貴邦人, 乃罵中朝人……貴邦之去亂黨, 如去暴病, 至調養以復元氣, 尙未措手也. 北洋專以通商議和爲務, 如引虎入室.” 밑줄은 저자가 표시한 것이다.

원세개는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건과 이연호와는 달리 원세개는 구체적인 현책을 제시하거나 저술한 것은 없으나 적어도 오장경이 사망하기 전인 1884년 이전까지는 경군 내 막료들과 같은 입장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원세개가 경군을 등지고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으로 전향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1882년 당시 원세개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소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건충이 조선에 온 사이 대원군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장경과 원세개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⁵⁴⁾ 원세개의 전향 시점을 추측해보면, 대원군 납치 전후, 혹은 늦어도 오장경의 사망을 기점으로 원세개는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으로 전향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⁵⁵⁾

확실한 점은 오장경이 사망한 시점부터 원세개는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의 지지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원세개의 전향을 두고 경군 소속 막료들은 즉각 원세개를 비판하였으며, 특히 주명반과 같은 경군 막료는 오장경 사후 이홍장과 의 관계 및 경군 내부의 균열을 우려하면서 조선 문제와 인사에 대한 북양대신아문의 개입을 우려하기도 하였다.⁵⁶⁾ 원세개

54) 『매천야록』 등에서는 오장경과 마건충이 함께 계획한 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夏冬波는 오히려 동정심이 많은 성격인 오장경이 미리 대원군에게 필담으로 한나라 때 한신(韓信)이 잡혀간 고사를 들어 몸을 피할 것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대원군의 납치는 오장경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이홍장과 마건충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일이었으며, 원세개가 갑자기 오장경의 뜻을 거스르고 마건충을 도와 대원군을 납치하는 데 힘을 보태었다고도 전해진다.

55) 유춘근, 앞의 글, 318~320쪽. 원세개의 불만은 이미 장건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장건이 쓴 『南通傳記』에 따르면 원세개는 갑신정변 이전에 이미 오장경을 조선 사무에서 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문의 연줄을 이용하여 이홍장, 장패륜 등과 접촉하였다. 이후 장건은 원세개를 오장경에게 추천하고 그를 지도한 것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의 전향 이후, 자연스럽게 경군 막료인 장건·장광전(張光前) 등 경군 소속 막료와 원세개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장건 또한 원세개를 비난했다.⁵⁷⁾

원세개는 오장경이 금주로 돌아간 직후인 1884년에 이흥장으로부터 총리영무처회판조선방무(總理營務處會辦朝鮮防務) 직을 받았다. 원세개는 1884년 갑신정변에도 서울에 잔류해 있는 경군을 지휘하여 공을 세웠다. 당시 경군의 3영은 명목상 오조유가 지휘하고 있었지만 갑신정변 전후 시기에는 사실상 원세개가 경군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장경이 사망한 이후, 서울에 남아 있는 경군 3영의 지휘권은 이흥장과 북양 대신아문이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갑신정변의 이듬해인 1885년에는 이흥장이 진수당의 후임으로 원세개를 주조선 총상무위원⁵⁸⁾에 임명하고 조선과의 통상 사무를 관장하는 일을 맡겼다. 또한 원세개는 조선 정부의 동향을 수시로 전보를 통해 이흥장에게 보고하였다.⁵⁹⁾

56) 朱銘盤, 『東藩紀要』(資料出處 : <https://ctext.org/wiki.pl?if=gb&res=293801>, 검색일: 2019.06.20.). “四月, 公隨吳公調防奉天金州. 有留別朝鮮士大夫詩. 時吳公已病甚, 吳公自朝鮮分其軍三營, 畀慰廷留防, 自統三營至奉. 不兩月, 慰廷自結李相, 一切更革, 露才揚己, 頗有令吳公難堪者. 公因與張季直昆季移書切讓之. 閏五月二十一日, 吳公卒於軍……司馬所謂營務處, 分統三營之營務處也. 會辦朝鮮防務, 會孝亭辦也. 公文具在, 文理昭然. 而司馬札封稱欽差北洋大臣會辦朝鮮防務總理營務處. 將不屑於此間歟, 則不應受事. 將以此愚瞽東人歟, 則東人不盡無知. 將竊借北洋以欺人歟……而司馬居然乘輿張蓋, 製五色馬旂呵殿出入. 平時建兵船黃龍大旂, 不知自處何地. 置孝亭何地, 置國家體制於何地……教練新建營會辦朝鮮防務, 司馬所得預者, 軍事耳. 此外朝鮮一切政事, 豈應越俎……必借北洋以干預朝鮮一切用人行政之權, 必交歡閔氏. 俾國王專奏力薦. 希圖防務商務之柄. 必以取重於國王者. 因取重於北洋, 希作海關道.”

57) 侯宜杰(張智勇 역), 『원세개 : 中國의 마지막 皇帝』, 지호, 2003, 44~45쪽; 유춘근, 「幕友 張謇과 袁世凱」, 『중앙사론』 6, 1989, 306쪽. 장건과 원세개는 10년 뒤인 1894년에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하였다.

58) 정식명칭은 “欽命總辦朝鮮各口商務委員”이다.

59) 이정희, 이혜경, 「오무장공사 소장 유물과 화교사회」, 234쪽; 이양자, 「袁世凱 在韓時의 活動과 그 背景」, 서울대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66; 林明德, 『袁世

V. 나가는 말

19세기 말 청 내부의 정치 갈등은 조선에서도 나타났다. 1880년 청 조정이 가지고 있던 대외교섭의 원칙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침에서 벗어나 “균세(均勢)”와 “결맹(結盟)”으로 전환되고 있었다.⁶⁰⁾ 이에 따라 조선에 대한 정치적·전략적인 가치가 청 조정 내에서 재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우발적인 사건”은 청 조정이 조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월남과 유구에 이어 조선마저 청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조선에 출병하고 있던 장건과 이연호의 헌책을 통해 수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장건의 『조선선후육책』과 이연호의 『조선부강팔의』는 각각 오장경과 이홍장의 정치 관계와 다른 정책 노선과 소속 집단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당시 청 내부의 정치적 반목을 청류파와 양무파의 양자 경쟁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18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북양대신아문과 예부·지방장군·경군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¹⁾

장건은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을 위주로 한 자구책을 강조하면서 이홍장의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 반면, 이연호는 이홍장과 북

凱與朝鮮』,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0, 9~66쪽; 岡本隆司, 『袁世凱-現代中國の出發』, 岩波書店, 2015, 20~36쪽.

60) 劉增合, 「1840~1884年晚清外交觀念的演進」, 『社會科學戰線』, 1998(1), 184쪽.

61) 북양대신아문, 예부, 지방장군의 갈등에 관해서는 김봉준, 「19세기 말 朝淸 「奉天邊民交易章程」의 역사적 의의(1882-1883)」, 『중국학보』 91, 2020; 「근대 조청 관계 외교문서의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姜博, 「1880년대 전후 淸의 朝鮮 事務 처리 기제의 재확립」, 『명청사연구』 57, 2022 등에서 소상히 다루고 있다.

양대신아문이 추진하던 대외 정책을 주축으로 외교 교섭과 통상을 위주로 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청 인사의 현책은 청 조정 내의 정치 관계 및 각 집단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장건과 이연호는 각각 자신의 조선 인식과 부국강병 구상을 현책 속에 담았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거나 이를 대변하려고 한 부분은 당시 청 내부의 정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두 현책에는 조선에 대한 개혁안이기도 하지만 실상 청의 내부 상황이 투영된 문자적 증거이기도 하다. 반면 이들과 교류했던 김창희는 장건과 이연호의 두 현책을 두고 저울질하면서 누구의 방안이 조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1884년에 금주에서 오장경이 사망한 이후, 원세개는 경운을 등지고 이홍장과 북양대신아문으로 전향하는 일이 발생한다. 원세개의 전향은 청 내부의 정치 갈등과 파벌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홍장은 1884년부터 원세개를 중용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원세개를 주조선 총상무위원에 임명하였다. 원세개의 총상무위원 임명은 원세개의 전향을 결정지은 기점이자, 한편으로는 청의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 원세개는 그리고 원세개는 조선 왕실에 대한 감시와 간섭을 시행함으로써 청의 변화된 조선 정책을 몸소 실행으로 옮겼으며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⁶²⁾ 당시 원세개는 이홍장과 오장경의 대립 관계에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향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원세개는 조선에서의 공적과 전향을 발판으로 이후 청 조정과 이홍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62) 이양자, 『감국대신 위안스카이』, 한울, 2020, 27쪽.

(2023.11.02. 투고 / 2023.12.12. 심사완료 / 2023.12.17. 게재확정)

[Abstract]

The Internal strife of Q'ing officials During the Joseon Imo Incident(1882)

Kim, Bongjun

In 1882, the Imo Incident was the first case in more than 200 years that the Q'ing dispatched army to Joseon after the Manchu Invasion(1636) of Korea, and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a foreign army was stationed in the capital of Joseon. In addition, from another spectrum, the Imo Incident is also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oseon issue.

The army dispatched from Q'ing were stationed at strategic points in Seoul after quickly suppressing the rebellion. Since then, Kim Chang-hee, a receptionist of the Joseon government, had exchanges with the officers of Q'ing army(慶軍), Jiang jian(張謇) and Lee Yan-hu(李延祐). Kim Chang-hee were able to receive suggestions(獻策) for reform of the Joseon government's pending issue.

However, Jiang jian and Lee Yan-hu's suggestions appear to be ostensibly claiming similar content, but they actually represented the positions of their affiliated political groups. In addition, differences in the modernization(洋務) plans and initiatives for both affairs were also reflected.

In this article, It would like to prove that the internal political conflict of the Q'ing Dynasty in the late 19th century was not a bilateral

confrontation between the Qingliu groups(清流派) and the Yangwu groups(洋務派), but a multi-competition structure between various political groups. In addition, the interests of each political group were reflected not only in the internal policies of the Office but also in foreign policies including Joseon.

Political conflicts within the Q'ing were reflected in the suggestions of Jiang jian and Lee Yan-hu, and their political struggles were taking place not in the Qing mainland, but in Joseon. In addition, the death of Wu Jiang-qing(吳長慶) and the conversion of Yuan Shi-kai(袁世凱) around 1884 not only revealed the conflict between internal political groups, but also served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hange in the Q'ing Dynasty's Joseon policy.

□ Keyword

Imo Incident, Korean-Sino Relation, internal strife, Foreign policy, Yuan Shi kai, Kim Chang hee

[참고문헌]

◎ 사료

- 金昌熙, 『譚屑』, 규장각 청구기호 : 古0320-1(總2卷1冊).
- 金昌熙, 『石菱集』, 규장각 청구기호 : 一簣古819.55-G415s-v.1-3.
- 李王職實錄編纂會編, 『東廟迎接錄』, 한국학중앙연구원, 1929.
- 吳大澂, 『吳清卿獻策論』, 韓國精神文化研究院所藏, 1卷1冊.
- 張謇, 李延祐, 『二說』 (古951.054 Y67i),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周家祿, 『奧窻朝鮮三種』(清光緒年間刻本), 沈雲龍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 42, 文海出版社, 1969.
- 朱銘盤, 『東藩紀要』(資料出處 : <https://ctext.org/wiki.pl?if=gb&res=293801>, 검색일: 2019.06.20).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南港: 中央研究院近史所, 1972.
- 『高宗實錄』(<http://sillok.history.go.kr/>)

◎ 연구서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 근대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編, 『中國人이 본 壬午軍亂 資料』(『海外韓國學資料 叢書』 8), 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4.
- 이양자, 『감국대신 위안스카이』, 한울, 2020.
- 陳偉芳(權赫秀譯), 『淸日甲午戰爭과 朝鮮』, 서울: 白山資料院, 1999.
- 최우길 등 공역, 『개항기 한중 지식인의 조선개혁론과 삼주합존』, 서울: 보고사, 2016.
- 侯宜杰(張智勇 역), 『원세개 : 中國의 마지막 皇帝』, 지호, 2003.

菊池秀明, 『ラストエンペラーと近代中國：清末中華民國』, 東京: 講談社, 2005.

岡本隆司, 『袁世凱-現代中國の出發』, 岩波書店, 2015.

林明德, 『袁世凱與朝鮮』, 南港: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0.

鄧衍林 編, 『中國邊疆圖籍錄』, 上海: 商務印書館, 1958.

夏冬波, 『淮軍名將吳長慶』,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7.

◎ 연구논문

姜博, 「1880년대 전후 淸의 朝鮮 事務 처리 기제의 재확립」, 『명청사연구』 57, 2022.

權赫秀, 「『吳淸卿獻策論』을 통해 본 淸政府의 對朝鮮 干涉政策」, 『藏書閣』 4, 2000.

김규선, 「金昌熙의 『石菱受柬』과 壬午軍亂 直後 韓中交流의 一面」, 『洙上古典研究』 39, 2014.

김봉준, “해방론의 맥락에서 본 청의 속국 정책: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대(對)조선 정책의 변화”,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 논문.

김성남, 「吳長慶軍營과 그 막료들」, 『대동문화연구』 74, 2011.

김성남, 「清代 朝行錄 傳承 現況과 特性」, 『人文科學』 46, 2010.

김용태, 「壬午軍亂期 韓中文人의 交流 樣相 - 趙冕鎬, 金昌熙의 活動爲 中心」, 『漢文學報』 17, 2007.

노관범, 「1880년대 김창희의 경세사상: 임오군란 직후 부강정책의 재설정」, 『韓國思想史學』 35, 2010.

박영준, 「동아시아 패권전쟁으로서의 청일전쟁 재조명: 조선 정치세력의 대응정책 대립과 그 귀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4-2,

2023.

유보전, 「청말 정치지식인의 조선 출사와 그 인식: 설배용의 『동변기요』 사례」, 『사림』 49, 2014.

유춘근, 「幕友 張謇과 袁世凱」, 『중앙사론』 6, 1989.

이정희, 이해경, 「오무장공사 소장 유물과 화교사회」, 『중앙사론』 57, 2022.

張啓雄, 「宗藩 對 獨立」: 朝鮮壬午兵變的國際秩序原理論述」, 『政治大學歷史學報』 40, 2013.

조병한,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동양사학연구』 88, 2004.

千金梅, 「石菱 金昌熙와 南通文人 張謇의 交流」, 『洙上古典研究』 39, 2014.

최우길, 「壬午軍亂 直後淸 從軍人士의 朝鮮內定改革案 -『三籌合存』 讀解爲中心」, 『洙上古典研究』 39, 2014.

하정원, 「石菱 金昌熙의 古文作法 과 散文批評에 대한 一考」, 『漢文學報』 24, 2011.

郭明芳, 「談『臺灣地圖總圖』及其副本」, 『東海大學圖書館館刊』 第36期, 2018.12.

劉增合, 「1840~1884年晚淸外交觀念的演進」, 『社會科學戰線』, 1998(1).

陳勇勤, 「晚淸清流派思想研究」, 『近代史研究』, 1993.